



7월 정세분석 및 전망

● ● ●

국회 공전 사태로 인해 주요 농정 현안 안개 속...

-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로 인해 국회 공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. 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의사 일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나라당만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만 개시 될 것으로 예상
-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내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돌파를 선택할 경우 당내 혼란은 가중되고 야당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정기국회 개원시까지 국회 자체가 공전 될 가능성이 있음
- 물론,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 될 경우 야당은 등원을 선택하여 국회 내에서 투쟁을 선택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
- 그러나 국회가 개원되더라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및 법안 추진은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 소극적 추진, 민주당 소극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미FTA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음

- 뿐만아니라 농협 개혁 등 주요 농정 현안들도 논의 또는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농연에서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관철 할 수 있는 대응활동이 필요



단경기 쌀값 하락 예의주시해야 할 듯

-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역계절진폭(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)이 발생. 미국종합처리장(RPC) 등 산지 매입주체들의 재고는 지난해에 견줘 50% 가까이 늘었음
- 2004년 풍년 → 재고 증가 및 단경기 역계절진폭 발생 → 2005년 수확기 RPC 등의 매입 기피 → 쌀값 폭락'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
- 만약,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등 재고 물량을 시장격리 시켜 계절진폭을 올리지 않을 경우 수확기 쌀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



선진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요 농정 현안 해결

- 한농연에서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참여를 통해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주력. 선진화위원회는 주요 농어업 의제를 각 참여주체별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임
- 일부 언론에서는 선진화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, 쌀 관세화 논의 가 의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된 사항이 아님. 이에 참여 주체의 합의에 따라 주요 의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에 나설 예정
- 단, 선진화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의사가 결정되고 350만 농민들과 반하는 정책들이 합의가 안될 경우 한농연에서는 선진화위원회 탈퇴는 물론 대 정부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.